기도응답? 성공사례? 없다!

(롬9:14~18)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기도응답? 성공사례?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기도응답이 없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마음으로 불편해하시고, 오해가 있을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면,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없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구체적인 기도는 다 가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그 맥락에서 기도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삶에 대한 우리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 일에 대해 생각지 않고 계시다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났으면, 주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야, 거참 좋은 생각인데? 내가 미처 생각 못했다, 그거 내가 이루어주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린 자꾸 이 세상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그러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의 기도응답이라면 전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는 그들이 원하는 일들의 확률을 따져보면, 우리가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면서도 은근한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일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고, 그것이 우연히 내가 기도하는 것과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참 기도응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이루시려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흘이 돼서 썩은 시체를 끄집어내시는 것이었고, 그 계획에 주님이 참여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고 응답입니다, 세상일에 대해서는.

자, '기도응답과 성공사례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과 연관된 믿음의 측면을 얘기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잘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필귀정입니다.
당연한 귀결로 나타난 사실이 이 세상일에 대한 기도응답, 내가 본받을 만한 성공사례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교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선택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믿고, 그 선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적으로 의미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얘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그 선택하신다는 행위가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서 의미를 갖느냐를 찾아서 그릇됨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여덟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삭만을 선택하시고,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되었는데 그 중에서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고 나서, 14절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바울 스스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 앞에 서게 되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지 않느냐? 야곱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느냐? 태어나기도 전인데. 에서에게는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한분의 마음에 드는 것을 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마음에 들어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상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차원을 그냥 들이밀지 않더라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인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있어서 불의하신가 아닌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놓여 있는 실존적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이 사그러듭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교황 성하로부터 박 근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빌 게이츠, 구글의 창업자 래리 페이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놓인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한 마디로 즉결심판을 받아서 죽고, 영혼도 멸망에 처해지는 것이 맞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황부터 방금 태어난 아기까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러한 죄적 상황에 놓여 져 있는 거예요.
그 죄적 상황이란, 마음심장을 꺼내서 마땅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빗나가서(하마르티아) 이 세상의 피조물들 중 누구에게 무엇에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마음심장을 꺼내준 대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겠다고 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복면을 쓰고 은행에 들어가 경비를 죽이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사람을 쏴 죽이는 상황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장 강도를 총으로 쏴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다른 비유를 들자면, 남편이 보는 눈앞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몹쓸 짓을 하는 것과 같다는 얘깁니다.

내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 내 사업을 잘해서 기쁨을 얻으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행하는 행위와 똑같다

이겁니다.
나라사랑도 마찬가지에요,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가 부강하면 기쁘다, 이게 바로 하나님 눈앞에서 간음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사랑, 동물사랑도 마찬가집니다.
꼭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갈 짓을 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찾으려는 게, 즉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되는 그런 행위, 지금 바로 다 멸망에 처해져야 마땅한 그런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선택하신다고 그래서,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한 내 몫을 받는 것이고, 선택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공로도 내세울 수가 없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뿐이고…
멸망하는 것은 원래 내 몫이에요, 그리고 선택받아 구원 받는 것은 무조건 은혜입니다, 어떤 자랑도 할 수가 없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내가 무엇인가 괜찮다고 느낄 만한 추호의 여지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내게 할당된 내 몫을 받는 것이에요.
이 일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출애굽기 3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금송아지를 섬기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 하다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가 중재했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궁금한 마음으로 증표를 원합니다, 어떤 증표입니까?
왜 애굽은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애굽 못지않게 악한데도 이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계속 수행해나가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원하게 됩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다가 그 사람이 놓여 진 상황과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마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게끔 되어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일에 대해 자극을 받아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

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이유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인계, 아름다움을 보면 홀딱 넘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행동하면 진노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심에 있어서는 이미 모든 인간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실 때는, 그 인간이 어떻게 행동했음에 의해 자극을 받아서가 아니고 당신 스스로 결정해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서도 동기를 부여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려고 사람을 내놓으신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려고 아담을 만드셔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방법으로 선악과를 만들어놓으시고 '선악과만 따먹지 않고 네 스스로 판단의 주체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도록 마음이 자극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주권을 갖고 계실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바로 1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이 구절 속에서 오늘의 제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 믿음에 관한 말씀이면서, 즉 구원과 믿음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달음박질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말도 안 되는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세상에 대해서 죽고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인생의 보람을 찾고 행복의 근거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선택적인 행위는 구원에만 믿음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기도응답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또,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말은 내 노력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사례, 성공신화, 성공스토리 발표, 이런 것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 필요함을 느껴서 소원을 갖게 되고, 그것을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공사례를 한번 얘기해봅시다.
기도응답과 성공사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도응답도 결국은 성공을 기도한 것인데, 응답받았다고 우리가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 목회성공, 자녀양육 성공, 기업 성공, 마케팅 성공, 등등 많은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계발서로 나오고 있고 가지가지 방법이 동원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성공사례는 일회적입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로 끝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가 기가 막힌 문체와 표현력을 가지고 김연아를 어떻게 키웠나 책을 써낸다 하더라도 제가 확언하건대, 그 책을 읽고 단 한 사람도 제 2의 김연아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빌게이츠의 아버지가 '빌게이츠'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길렀는가.
그 아버지가 착각한 것이고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김연아가 김연아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김연아 어머니가 그렇게 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김연아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김연아의 어머니를 움직이실 수는 있지만, 김연아의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그 교육방법대로 하면 또 하나의 김연아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빌게이츠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빌게이츠의 아버지는 본의 아니게 세상에 사기를 친 겁니다.
자기가 빌게이츠를 기를 때, 지금의 빌게이츠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기른 것도 아니고.
오직 절대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일이 일어나도록 빌게이츠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고인이 되신 옥한음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하셨습니다,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그걸 따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자훈련은 옥한음 목사님 한 사람에게 그분의 목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이템입니다.
그것을 사랑의 교회가 온 교회에 퍼뜨리겠다고 하는 것이 사기고 불신앙이고, 그것을 따라 하겠다고 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불신앙적인 목사님들입니다.
하나님이 옥한음 목사님보다 가까이 계시고, 옥한음 목사님의 제자훈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내 목회에 대해 죽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내게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공사례를 쫓아가는 것은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밀쳐내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빗나가는 하마르티아의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마르티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목회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성공했더라도 마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룬 성공에 똑같이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모든 목회에 성공하신 목사님들이 다 거짓말쟁이고, 교만에 빠진 것이고,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공사례는 그렇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의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사업의 문제, 창업의 문제, 마케팅의 문제, 모~든 문제에 내 마음이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려면 마음이 땅에 대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내 마음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마케팅, 사업, 자녀, 이 모든 것에서 죽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총력을 다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하늘에서 결정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집어넣어주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소원이 되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원이 생기게 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세상일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근심하고 노심초사 했던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 따라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땅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지고, 그것이 소원이 돼서 기도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세상일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일의 성사는 오직 절대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이유 때문에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일도 선택되는 것이고 상황도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 내 눈에 이 세상적인 기준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 위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떠나 세상 사랑을 중단하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뿐,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사기고 거짓말이고 한없는 모욕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나의 어떤 행동과 생각에 자극됨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유로 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내게는 무한한 위로가 됩니다.
이 위로 안에서 오늘도 절대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떨어져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